

자료 2024-03-29 / SINCE 1990~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지역 자립준비청년 위해 1억 5천만원 후원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본점에서 배준열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장과 고병일 광주은행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1억 5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후원금 전달을 통해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기 바란다”며, “지역 대

표은행으로서 우리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회 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기아타이거즈 'V12 우승' 기원...예·적금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이 2024 프로야구 시즌 개막에 맞춰 기아타이거즈의 'V12 우승'을 기원하는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출시했다.

‘우승기원 적금’은 월 10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정액적립식 상품으로 예금과 동일한 조건의 우대금리(최대 연 0.25% 포인트)를 제공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설레는 봄과 함께 찾아온 프로야구 시즌에 지역민을 비롯해 야구 팬들과 함께 '기아타이거즈 우승'을 응원하기 위해 예·적금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금융상품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브랜드' 적극 발굴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 브랜드'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솝이나 베자 등 친환경 활동에 적극적인 브랜드들이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관심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브랜

드를 적극 발굴해 고객들에게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 전기차용 타이어 브랜드 'EnnoV' 출시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이노뷔 (EnnoV)’를 최근 출시했다.

이노뷔(EnnoV)는 전기를 뜻하는 ‘일렉트릭’ (ELECTRIC)과 혁신을 뜻하는 ‘이노베이션’ (INNOVATION)의 결합어로, 금호타이어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모두 담은 EV 전용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은 “이노뷔는 전기차에 최적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출시한 금호타이어의 혁신 제품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걸맞게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운전자에게 최상의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 중대법 확대 시행 대비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설명회 개최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일 광주지역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안 이사장은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모든 사업장들이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해양조

◆ 국제식품박람회 푸덱스 재팬에서 'K-포차' 선보여



보해양조는(대표 임지선)는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 식품 박람회 ‘푸덱스 재팬 (FOODEX JAPAN)’에 참가해 K-포차를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주류업체는 물론 커피, 음료 업체 등 80여개국 8만여명이 참여하는 세계 3대 식품 박람회 중 하나로 보해양조는 일본 MZ세대 한류열풍을 겨냥해 박람회

홍보관을 포장마차 컨셉트로 꾸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몽골의 식품 유통업체 CEO는 일본 수출용 제품인 과일 맛 ‘잎새주’ 시리즈를 수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전KPS

◆ 전문가 5인 '감사 자문위' 구성..."신뢰 제고"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자체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감사 자문기구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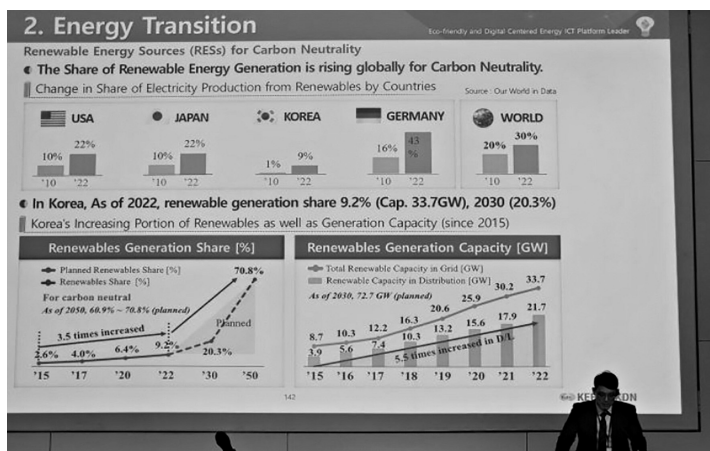
3기 한전KPS 감사자문위는 자체 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와 법률,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5인으로 구성했다. 자체 감사 운영과 제도를 개선하고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며 감사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성규 상임감사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 자문위가 자체 감사 역량과 내부 통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윤리경영과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경청하며 감사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전KDN

◆ '한-독 에너지데이' 컨퍼런스서 기술력 뽐내다



한전KDN(사장 김장현)이 '제6회 한-독 에너지데이' 컨퍼런스에 참가해 배전계통 기술력을 뽐냈다.

한전KDN은 해당 기간 컨퍼런스 참가와 워킹그룹회의 발제로 신재생에너지 배전연계 기술을 통한 전력계통 안정화와 전력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한전KDN의 전력계통 기술력을 선보였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전력 ICT 관리 운영의 기술력을 기초로 세계적 탈탄소화와 에너지안보를 위한 배전연계 기술 고도화를 통해 에너지ICT 전문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네갈 공적 원조사업 지속 실행 협약 체결



한전KDN(사장 김장현)은 최근 서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회의실에서 ‘세네갈 주파수 조정용 ESS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프리카 세네갈에 전력계통 주파수조정용 ESS(Energy Storage System) 통합시스템(ECS, ESS Control System)을 구축, 현지의 열악한 주파수 및 전압 불안정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국가 정책의 실현을 위한 공적원조사업의 성공적 수행은 대한민국의 선진 기술을 알리는 기회”라면서 “공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공동 참여형 해외사업 지속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에너지ICT 전문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해양에너지

◆ 제11차 ESG위원회 개최



지속가능한 지역 기업 경영환경을 위한 광주시(시장 강기정)의 노력에 발맞춰(주)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희)는 지속적으로 ESG경영을 위해 지난 20일 하나은행 광주지점 라운지 1968에서 제11차 ESG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올해 첫 위원회로, 2024년 ESG위원회 운영계획 공유, 2023년 회사 10대 뉴스, 2023년 ESG경영 실적 및 2024년 추진계획을 공유하였고, 2024년 사회공헌활동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2024년 사회공헌활동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장학 지원활동, 가스안전 지원활동, 임직원 및 시민참여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4가지 큰 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알림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최수용 팀장

● e-mail: gjef3425@naver.com

<제1642회 금요조찬 포럼>

탄소중립 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윤종일 교수)

1642회 금요조찬포럼은 카이스트 윤종일 교수를 초청하여 「탄소중립 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세대를 포용하는 공감 능력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앞으로 남은 인생 중 작년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고, 내년에는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0년간 0.74도 기온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기온이 1.7도가 올랐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 속에 전 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만들고 있으며, 우리가 변모하지 못하면 토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AI를 기반으로 데이터센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냉방을 위한 전기입니다. AI시대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점점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입니다. 에너지의 93%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지만 에너지 소비는 세계 7위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모든 산업이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라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K-텍소노미를 발표했습니다. EU와 비슷한 내용으로 앞으로 텍소노미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높은 이자 부담을 안고 사업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 오게됩니다.

또한 유럽에서 도입한 탄소 국경세는 관세 상품에 대한 품질이나, 성격이 아닌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 투입한 에너지에 따라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우선 적용 하는 산업군은 철강, 알루미늄, 수소, 시멘트, 전기 등이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의 제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현재 기술에는 원자력, 태양광, 풍력 외 다른 방법은 어렵습니다.

한국은 현재 에너지 안보가 가장 뒤쳐져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특정한 하나의 에너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에너지를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4년 기업 임금정책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영계 권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2% 초반의 저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더딘 내수 회복세, 국제정세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이마저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와 일부 대기업 노조들은 올해도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의 지나친 임금 인상은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관성적으로 높은 임금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의 임금격차 확대가 지난 20여년간 대기업 임금이 너무 높게 상승한 것에 주로 기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은 고임금근로자 임금을 더욱 높이기 보다는 임금안정을 통해 청년고용 확대 등을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경제는 향후 1%대 성장이 일상화되어 중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 같은 총요소생산성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하여 이미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했고, 성장의 시대적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과거처럼 양적 투입 위주의 경제성장이 어려워진 現상황에서 생산성 제고는 필수적입니다. 우리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아직도 OECD 평균의 74.2%, G7의 61.9%에 불과한 현실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몰입한’ 근로자 비율(12%)이 125개국중 107위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갤럽) 등을 고려하면, 업무 효율성 제고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경총은 기업의 2024년 임금정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 동향

◆ 경총, 「한·일 임금현황 추이 국제비교와 시사점」 발표 (3.17)

○ 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3월 17일 발표한 「한·일 임금현황 추이 국제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2002년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우리 임금수준이 2022년에는 일본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누적된 높은 임금인상으로 인해 일본과 달리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① (한·일 임금수준) 2002년과 2022년 한국과 일본의 상용근로자 월 임금총액 비교 결과, 우리나라는 2002년 179.8만원으로 2002년 일본[385.4만원(385.6천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22년에는 399.8만원으로 일본[379.1만원(385.5천엔)]을 넘어섰음.

* 월 임금총액 기준 : 10인 이상 기업(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상여금 등)합 (초과급여는 제외)

－ 규모별로도 2002년 당시 한국의 대·중소기업 임금(大 228.4만원, 中小 160.8만원)은 일본[大 483.6만원(483.8천엔) / 中小 310.6만원(310.7천엔)]보다 훨씬 낮았지만, 2022년에는 모두 일본보다 높아짐.

② (한·일 규모별 임금인상률) 2002~2022년 우리나라 대기업 임금인상률은 157.6%('02년 228.4만원 → '22년 588.4만원)에 달했으나, 일본 대기업 임금은 오히려 6.8% 감소(483.8천엔 → 450.8천엔)

－ 일본 중소기업 임금은 2002년 310.7천엔에서 2022년 332.5천엔으로 7.0% 인상되는데 그친 반면, 우리 중소기업 임금은 160.8만원에서 339.9만원으로 111.4%의 인상률을 보였음.

③ (근로시간 변화를 고려한 한·일 임금인상) 002~2022년 간 양국 근로시간 변화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임금인상률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남.

* 소정 근로일에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사이에 실제 근로한 시간(초과근로시간 제외)

－ 우리 월 근로시간이 2002년부터 2022년까지 13.8% 감소(초과근로시간 제외)하는 동안, 월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은 122.3% 늘어, 시간당 임금은 2002년 9,954원에서 2022년 25,661원으로 157.8% 상승한 반면, 동기간 일본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거의 변동이 없어, 2022년과 2002년의 시간당 임금도 비슷하였음.

*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을 월 실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제외)으로 나눈 값

－ 동 기간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시간당 임금 증가율은 각각 152.5%와 183.1%에 달했으나, 일본 중소기업은 8.9%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일본 대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Delta 9.7\%$)

- ④ (근로시간 및 경제성장을 고려한 한·일 임금인상 비교) 근로시간 외에 임금인상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률*까지 함께 고려한 임금인상률도 대기업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분석

* 각 국가의 임금인상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거시변수가 경제성장률임을 고려하여, 양국의 기업(사업체) 규모별 시간당 임금 인상률과 1인당 명목 GDP 증가율을 비교

- 2002~2022년 우리 대기업 시간당 임금 인상률(183.1%)은 1인당 명목 GDP 증가율(154.2%)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일본은 1인당 명목 GDP가 조금이나마 증가(8.8%)했음에도 대기업 시간당 임금은 오히려 9.7% 하락
- 동 기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시간당 임금 인상률(152.5%)은 우리 1인당 명목 GDP 증가율(154.2%)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일본 중소기업의 시간당 임금도 우리와 유사한 양상을 보임.

- ⑤ (한·일 규모별 임금격차 수준 및 변화) 2022년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우리나라가 57.7로, 일본(73.7)에 비해 낮아,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일본보다 더 컸음.

- 2002년에는 일본(64.2)이 우리나라(70.4)보다 낮았지만, 이후 20년 동안 우리나라 대기업 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우리 임금격차가 일본보다 확대

- 우리는 일본과 달리 대기업의 누적된 높은 임금인상으로 초래된 임금격차와 이에 따른 이중구조 심화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고임금 대기업일수록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청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노력할 필요

◆ 경총, 「新고용취약계층 40대의 고용흐름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3.20)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0대 인구의 고용 현황을 통계 분석한 「新고용취약계층 40대의 고용흐름과 시사점」 보고서를 3월 20일 발표함.
-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고용 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음을 파악
 - 지난해(2023년) 전체 취업자 수가 32만 7천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40대 취업자는 5만 4천명 감소해 고용취약성이 드러남.
- 경총은 40대 취업자 중 특히 남성·비임금·제조업 부문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크게 나

타났다고 분석

- 40대 취업자 626만명 가운데 남성은 367.7만명(58.7%), 여성은 258.3만명(41.3%)을 차지(2023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2022년부터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
- 40대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꾸준히 하락
- 2014년과 비교해 40대 제조업 취업자 수는 15.4만명 감소한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약 11.2만명 증가하는 등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2023년)
- 경총은 '쉬었음' 인구와 경력단절 여성 증가 등 40대 노동력 유희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
 - 4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조사 대상 기간에 '쉬었다'고 답변한 인구 수는 26.5만명(2023년)으로 2014년과 비교하면 8.0만명 증가해 40대 유희노동력의 증가가 심화
 - 2023년 40대 경력단절 여성의 수는 59만명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대 경력단절 여성 수(54.4만명)를 넘어섬. 이는 과거보다 혼인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이 늦어짐에 따라 여성 경력단절 시기 역시 40대로 지연된 결과로 추정
- * 여성 평균 초혼연령(세, 통계청): 28.9('10) → 29.9('15) → 31.3('22)
- 경총은 40대 인구는 796만명(2023년)으로 2014년 대비 약 75.8만명(△8.7%) 감소했다고 분석
 - 40대 기혼자 수는 큰 폭으로(147.4만명↘, 기혼율 9.8%p ↘) 줄었고, 대졸자 비중은 18.6%p 증가하여 40대 인구의 비혼·고학력화 등 사회특성적 변화가 두드러짐.
- 경제의 허리층이자 신고용취약계층인 40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재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법·제도 정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 산업구조 전환을 반영한 직업훈련 강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정비 등 다각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 강조

◆ 기획재정부, 「2023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발표 (3.15)

- 2023년 해외직접투자액(국내→해외)은 633.8억달러로 전년(815.1억달러) 대비 22.2% 하락*
 - * '23년 해외직접투자액의 감소 폭(△22.2%)은 '02년(△31.6%) 이후 21년 만에 최대 감소 폭
 - ※ 최근 5년('19~'23) 해외직접투자액 추이(억달러)
 - : 654.9('19)→ 581.8('20)→ 768.8('21)→ 815.1('22)→ 633.8('23)
- (업종별) 금융·보험업(256.6억달러), 제조업(202.5억달러), 부동산업(42.4억달러), 광업(33.8억달러), 도·소매업(25.5억달러) 순

- (국가별) 미국(277.2억달러), 케이만제도(61.7억달러), 룩셈부르크(49.5억달러), 캐나다(36.0억달러), 베트남(26.4억달러) 순

※ '23년 對중국 해외직접투자는 18.7억달러로 중국이 상위 5개 투자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92년 이후 최초

- 해외직접투자액에서 회수금액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2023년 514.3억달러로 전년(647.9억달러) 대비 20.6% 감소

* 순투자액 = 총투자액 - 투자회수액(지분 매각, 대부투자 회수, 청산)

◆ 한국은행, 「2024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 발표 (3.15)

- 2024년 2월 수출물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석탄 및 석유제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1.4% 상승(전년동월대비 4.2% 상승)

※ 최근 수출물가 상승률 추이(% , 전월대비) : 0.6('23.10)→△3.5(11)→△1.0(12)→3.1('24.1)→1.4(2)

* 원/달러 평균환율(원) : 1,323.57('24.1월)→1,331.74('24.2월) [전월대비 0.6% 상승]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0.2% 하락(전년동월대비 4.7% 하락)
- (공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1.4% 상승(전년동월대비 4.3% 상승)

- 2024년 2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광산품, 화학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1.2% 상승(전년동월대비 0.2% 하락)

* 두바이유(월평균, 달러/bbl) : 78.85('24.1월)→80.88('24.2월) [전월대비 2.6% 상승]

※ 최근 수입물가 상승률 추이(% , 전월대비) : 0.9('23.10)→△4.4(11)→△1.7(12)→2.5('24.1)→1.2(2)

- (원재료)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4% 상승(전년동월대비 1.9% 하락)
- (중간재) 화학제품,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0.8% 상승(전년동월대비 0.8%하락)
- (자본재 및 소비재) 자본재는 전월대비 0.0% 상승했고, 소비재는 전월대비 0.5% 상승(자본재 전년동월대비 3.2% 상승, 소비재 3.8% 상승)

◆ 한국은행, 「2023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발표 (3.20)

- 2023년 지식재산권 수출은 263.2억달러, 수입은 261.4억달러를 기록하여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8억 달러 흑자를 기록
-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나타낸 통계로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

◆ 한국은행, 「2023 OECD/INFE*」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발표 (3.7)

* INFE : OECD 산하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글로벌 협력기구(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유형별〉

- 2023년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은 18.6억달러 적자, 저작권은 22.1억달러 흑자를 기록
- (산업재산권) 특허 및 실용신안권(△7.0억달러)과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11.7억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기록
- (저작권) 문화예술저작권(11.0억달러)과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11.1억달러) 모두 흑자를 기록

〈기관형태별〉

- 2023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대기업이 62.4억달러 흑자, 중소·중견기업은 61.1억달러 적자를 기록
- (대기업) 국내 대기업(60.7억달러)을 중심으로 흑자를 기록
- (중소·중견기업)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57.7억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기록

〈산업별〉

- 2023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제조업이 27.7억달러 흑자, 서비스업은 27.1억달러 적자를 기록
- (제조업) 전기전자제품(21.1억달러), 자동차·트레일러(16.5억달러) 등을 중심으로 흑자를 기록
- (서비스업) 정보통신업(△14.5억달러), 도매 및 소매업(△8.1억달러), 사업시설 관리 및 지원업(△5.2억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기록

2. 노사 동향

◆ 경제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ILO 권고안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 ILO는 3. 1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지난 2022년 12월에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이하 ‘결사위’)의 권고안을 채택하고 공개
 - ※ 결사위 권고는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등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2022. 11.24~12. 9)로 인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2022. 11. 29, 12. 8) 등에 대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제기했던 진정 사건에 관한 것임.
 - 결사위는 ① 집단운송거부 참가자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형사처벌 하지말 것, ② 개별 조합원의 행동에 기인한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에 대한 제재가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등을 권고
 - 그러나, 금번 결사위 권고에는 우리나라의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이 없으며, 권고의 법적 강제성도 없음.
-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하며 ILO 권고 관련 입장 표명
 - 정부는 ①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 불응만을 이유로 형사 제재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으며, ② 개별 조합원에 대한 조치는 폭력·협박 등 법 위반 행위에 따른 것으로 화물연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
- 한편, 경총 등 경제6단체는 3. 21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ILO 권고안 채택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 경제6단체는 지난 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출하 차질 규모가 약 4.3조원으로 추산되는 등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었고, 추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했다고 강조
 - 또한, 경제6단체는 향후 부당한 단체행동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조치가 최대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

◆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주력한다는 계획

- 정부는 3. 20부터 고용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실시

- ※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 2024. 3. 20 ~ 4. 19
- 정부는 일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 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확인함에 따라 현장점검 진행 결정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 22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

[참고] 관계부처별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관련

관계부처	주요 내용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실시(3. 14~3. 29)<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금품 강요 등에 대해 건설 관련 협회 회원사 전수조사② 지역실무협의체 를 통한 불법행위 점검(4. 22~5. 31)<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국토청,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 경찰청으로 구성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 중심의 현장점검 및 단속(4. 22~5. 31)<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채용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 권고 등 처분받았던 사업장, ② 건설업체 민원 사업장, ③ 언론보도 등을 통해 파악된 채용 강요 사업장 등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현장 폭력행위 정보 수집 및 단속 강화체제 돌입(3. 14~)<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점검 기간 중 사안별 단속을 진행하고, 관계부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 추진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NO	사업명	지원대상	기업지원(금액)	문의 (062)
1	청년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 우선지원기업 ◦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 1인 720만원 (월60만원) ◦ 2년후 : 1인 480만원 	716-3424
2	뿌리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뿌리기업 중 청년,신중년, 중장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만 35세 ~ 49세 채용 시 ◦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 1인 720만원 (월60만원) 	716-3503
3	중장년 내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인 이하 중소기업 ◦ 만 40세 이상 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자 이전직 상담, 생애설계 등 기업별 무료 상담 	609-8964
4	청년성장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신규 인력채용 기업 (관리자 및 청년층 신입직원) ◦ 신규 채용기간: 최근 1년 이내 ◦ 청년층 연령: 만 15세~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친화 조직문화 및 직장 온보딩 프로그램 제공 	654-3427
5	북구 굿잡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및 북구 일대 중소기업 ◦ 광주광역시 구직자(취업준비 청년, 여성, 중장년 등) ◦ 지역 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혹은 지역 인재를 구인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일자리 동영상 제작 ◦ 취업매칭 지원 ◦ 고용부 워라벨 인증지원 	654-3427
6	공동안전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월 1회 이상 방문 컨설팅) ◦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 	716-3501